



교회소식 & 이웃소식

1. 한반도의 평화, 경제정의, 그리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함께여는교회입니다.
2.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위생수칙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3. 방역당국의 방침에 따라 온라인 예배에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표승범)
4. 사회선교단체 특별지원금 3개 기관(교회개혁실천연대, 촛불교회, 성서한국) 각 50만원 후원하였습니다. (노희창)
5. 9월 20일, 장로회가 있습니다. (김대준)
6. 9월 20일,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표승범)
7. 수도권 방역 2.5단계 조치가 지속되고 있는데다 추석연휴도 얼마 남지 않아, 촛불기도회는 10월 8일(목)부터 재개하기로 촛불교회 운영위에서 결정하였습니다.
8. 함께여는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가족팀에게 말씀하시면 소정의 안내와 교육을 통해 함께여는교회 식구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 안용희, 한성모)

- 함께여는교회 예배 시간
주일 오전 11시 30분
- 함께 가는 공동체
뉴스앤조이, 교회개혁실천연대, 성서한국, 하나누리, 희년함께, 개척자들, 촛불교회
- 교회 주소
서울 중구 퇴계로36가길 97(B1층)
- 교회 전화번호
02) 743-4113
- 교회 홈페이지
www.opentogether.org
- 교회 은행계좌
국민은행 089501-04-184175

섬기는 분들

교인총회의장	홍사성
운영위원장	표승범
예배팀장	김정민
사회선교팀장	노희창
교육팀장	유정옥
생활팀장	김현숙
가족팀장	안용희
재정팀장	방태홍
나눔미대표	박상현
청년회장	한의진
장로회	김대준 김동훈 송 건 정모세
교육전도사	김 덕

함께여는교회

제12권 25호
2020년 9월 13일

함께 여는 이야기

『영생을 주는 소녀 1_ 안정혜&김민석_ IVP』

『비혼주의자 마리아』가 교회 내 여성에 대한 폭력의 민낯을 보여 주었다면, 『영생을 주는 소녀』는 피해자였던 이들이 주도권을 쥐고 기독교 세계관이 문제 해결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고민해 나간다는 점에서, 기독교 여성 서사물의 또 다른 장르를 개척했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최신 뇌과학 연구 결과와 이론을 가미하여 속도감 있게 스토리가 전개되면서 몰입도를 최고조로 끌어 올린다. 가히 '기독교 세계관으로 빚어 낸 SF 만화'라 부를만한 새 장르가 탄생했다.

'에봄'의 대표 이도연은 말한다. "다라 씨가 아까 그랬죠. 인간이 변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추잡한 짓거리 좀 그만 보고 싶다고. 제가 토브를 개발하기 시작한 이유도 같아요." 기독교의 복음으로도 바뀌지 않는 사람들, 한쪽에서는 선한 행동을 하면서도 다른 한쪽에서는 폭력을 저지르는 사람들...

"폭력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까? 이전에 별로 해 보지 못한 질문에서 이 작품은 시작되었다....폭력은 하나님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창조한 것을 후회하시게 만든 근본 이유였다. 폭력이 인간 죄성의 핵심에 놓인 문제라면, 죄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어진 예수의 복음에도 폭력의 문제에 대한 답이 있을까? 『영생을 주는 소녀』는 바로 이러한 폭력의 문제에 대한 질문과 근미래적 SF작품을 꼭 해 보고 싶었던 두 작가의 사심이 가득 담겨서 시작되었다."

만화를 시작하면서 품었던 작가의 질문은 작품 곳곳에서 등장인물들의 대사와 생각 등에 배치되어, 독자 개인과 교회 공동체가 현실 기독교에 대해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도록 초대한다. 그들이 꿈꾸는 세상은 올 수 있을까?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IVP 서평에서 발췌

함께 여는 예배

오전 11시 30분

침묵의 기도	다	함	께
신앙고백	다	함	께
함께하는 기도	다	함	께
성경봉독 요 4:20~24	인	도	자
말씀나눔예배.....	송		건
환영/알리는말씀	김	동	훈
송영과축도	다	함	께

예배위원

	9월 13일	9월 20일	9월 27일	10월 4일
성경봉독	-	-	-	
말씀나눔	송 건	김동훈	정모세	이웃과 함께하는 예배
점심친교정리	-	-	-	

함께여는교회 신앙고백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며,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생명과 평화의 영인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함께여는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임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공동체임을 믿으며,
이웃과 민족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치유에 앞장서는
하나님의 일꾼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며,
섬김과 사랑의 도를 배우고 실천케 하는 능력이 됨을 믿으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적용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는 자연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담긴 계시임을 믿으며,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본분임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여는교회 축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고이 보시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민6:24~26)